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전남동부권 건설 업체 법정교육장소 재선정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서 연 2회 실시

국도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지정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재선정 되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광주시로 한정하여 실시해온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전남동부권 중심지인 순천시에서 개최 할 것을 건의 해 국도교통부가 2019년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

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도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등록관청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건설업체 전남 동부권 법정교육 대상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의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건설업체가 해당되며, 장소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1월 25일과 9월 6일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된다고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가 순천으로 재지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법정 교육 참가자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연합회와 전국 시군구 건설협회·학회 등 관련단체 워크숍등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외홍보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한다

구례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1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80여 대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실시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마감한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구례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검사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결과 정상 운행에 적합하고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등의 체납 또한 없어야 한다. 다만 관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가 없어 인근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성료

광양시는 새해 영농 계획수립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당초 계획보다 68명 12%가 늘어난 농업인 658명이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2019년 달라지는 농업·농촌 정책, 가축방역(AD), 농약·농약잔류물관리제도(PLS) 등 기본교육과 감, 잡다래, 매실, 생강, 산초, 체리 등 우리시 주요 농산물의 저비용 고품질 재배기술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해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을 하였다.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교육은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도 많이 참여해 그 어느 해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작년 대비 농산물 가격 폭증으로 일부 작목 관심도가 증가하고, 교육생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홍보에 적극 활용한 점도 교육 참석률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시는 이날 말부터 2월까지 우리 시 대표작목인 매실 재배기술 교육을 각 읍면동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허남일 기술지원팀장은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연중 다양하게 실시하므로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함평성심병원, 업무협약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구태립)와 함평성심병원(원장 정대호)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24일 함평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데 공감하면서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평지역 청소년들은 일반진료비의 30%, 비급여 항목진료비의 20%를 할인 받게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료 진료 혜택을 받게 되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도 임원·외래비의 10%를 할인 받게 된다.

구태립 함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함평성심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해 예산 절감

광양시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건설품질 심사를 확대해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사비 3천만 원 미만으로 적정원가 산정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시행돼 건설품질 심사가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시는 적정 원가심사 및 설계도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존의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 원 미만 사업까지 확

대해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건설

품질 표본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1건 중 공사내용과 공정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각 2건씩 총 24건 5여 원을 표본으로 추출해 진행했다.

시는 심사과정에서 ▲원가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여부 ▲설계가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여부 ▲예산차오 등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92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

입 등 원가계산 공법 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계약 전 심사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도에는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김병태 설계심사팀장은 "표본심사에서 발생한 주요 지적사항을 읍면동에 통보하고, 내부 전산망으로 공유해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 건설품질심사를 꼼꼼히 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황경석 기자

설 당일 주암댐 고립모지 성묘객 수송

순천시·육군 제1179부대·수자원공, 성묘객 편의제공



순천시는 주암댐 건설로 인해 고립된 모지에 가족과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설' 당일인 2월 5일성묘객 특별 수송을 추진한다.

주암댐과 주암조절지점(상사댐)에는 약 610여기의 고립모지가 있어 매년 '설'과 '추석'에는 100여명의 인원이 동력선과 보트를 이용해 성묘를 하고 있다.

올 설 명절에도 순천시는 육군 제1179부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

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주암댐 고립모지 성묘객을 위해 주암면 대광리 선착장(산 175-3번지)과 승주읍 유평리 선착장(산 87-2번지)에서 성묘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성묘객 수송에 앞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성묘객 안전수송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설' 당일 성묘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주암면과 상사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암댐 고립모지 성묘객 수송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성묘객들의 편안한 성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황경석 기자

영광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부부 시술비와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이 체외수정 7회 중 임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 총 10회에 한해서 최대 50만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

영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군에서 추가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선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